



엠넷 랩 경연프로그램 '쇼미더머니10'의 래퍼 그레이와 위너 송민호(오른쪽). 사진제공 | 엠넷

힙합팬 맘 흠친 '쇼미더머니10' 음원들 각종차트 상위권 싹쓸이

엠넷 랩 경연프로그램 '쇼미더머니10'이 화제 속에 종영한 '스트릿 우먼 파이터'의 인기를 이어받은 분위기다. 프로그램 프로듀서들과 참가자들의 음원이 각종 음원차트에서 상위권에 랭크되는 등 막강한 '화력'을 자랑하고 있다.

특히 음악 경연프로그램의 흥수 속에서도 힙합 팬들의 뜨거운 지지를 얻으며 '쇼미더머니'만의 인기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시즌에서는 래퍼 그레이·위너 송민호, 자이언티·슬룸, 개코·코드쿤스트, 엠파·토일이 프로듀서로 나서 참가자들을 심사하고 있다.

5일 방송에서 이들은 저마다 마음에 드는 참가자들을 영입해 팀별로 음원을 만드는 '음원미션'을 진행했다. 이후 각 팀의 미션곡을 멜론 등 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 발매했다. 8일 현재까지 래퍼 그레이·위너 송민호 팀이 내놓은 미션곡 '쉬어'가 음원차트 1위에 올랐다. '웨이크 업'(개코·코드쿤스트 팀), '트러블'(자이언티·슬룸 팀), '너와 나의 메모리즈'(엠파·토일 팀) 등 나머지 미션곡들도 10위권 내에 모두 안착했다. 이들의 무대 영상은 유튜브도 휩쓸었다. 그레이·송민호 팀의 무대 영상은 공개 하루 만인 이날 오후 235만 조회수를 기록해 인기 급상승 동영상 1위에 올랐다. 다른 팀의 무대 영상들도 각각 100만뷰를 훌쩍 넘겼다.

비오, 머드 더 스튜던트, 소코도모 등 참가자들은 일찌감치 화제인물로 떠올랐다.

인기 속에 다음 달 11,12일 이틀간 서울 올림픽공원 KSPO DOME에서 콘서트도 연다.

유지혜 기자

편집 | 최혜경 기자 hk7048@donga.com

“주 인턴기자 돌풍...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다른 예능프로션 내 대사가 패러디 갑작스러운 인기 맘 다잡으려 노력 이병헌·신동엽 선배와 리딩맨 감격 코믹 캐릭터 부담? 또 다른 원동력

“좋은 질문? 지적? 감사합니다.”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쿠팡플레이의 예능 콘텐츠 'SNL코리아 리부트 시즌1'(SNL코리아)에서 스타가 탄생했다. 주현영(25)이다. '주 기자'로 더 유명하다. '워렌드 업데이트' 코너에서 각종 이슈를 소개하는 인턴기자로 등장해 9월4일 첫 회를 공개하자마자 화제의 인물로 떠올랐다.

당찬 표정으로 애써 긴장감을 감추는 인턴기자 연기를 하며 수많은 사회초년생의 눈물 젖은 공감을 자아냈다. 6일 종영할 때까지 매회 성장하는 모습도 담아냈다. 막판에는 앵커 역의 안영미에게 '여공 질문'을 펼칠 정도였다. 8일 서울시 마포구 'SNL코리아' 제작사에 이스토리 사옥에서 만난 주현영은 “성장형 캐릭터의 매력에 저도 푹 빠졌다”며 웃음을 터뜨렸다.

● “갑작스러운 관심, 무섭기도 해요”

‘주 인턴기자’ 열풍은 여전히 뜨겁다. 유튜브 영상은 많게는 600만뷰를 돌파했고, 다양한 예능프로그램 출연자들은 그의 대사인 “좋은 질문? 지적? 감사합니다”를 패러디했다. 데뷔 3년 차에 접어든 주현영은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라며 열띤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 첫 회부터 관심을 많이 받았다.

“정말 열띤 열풍이네요.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하고요. 주변에서는 ‘즐길 수 있을 때 즐기라’고 하지만, 즐기는 방법도 모르는데 어떡하죠. 이럴 때 때려서 실수하기 쉬우니까 마음을 잘 다잡으려 노력하는 중이에요. 부모님께서는 밖에서는 제 이름을 속삭일 정도로 조심하고 계세요. 잔하기도 하면서 행복해요.”

- 주 인턴기자의 탄생 과정이 궁금하다.

“처음에는 패기 넘치는 젊은 당 대표 캐릭터를 기획했어요. 지금 유행하는 말투도 그때 만들어졌죠. 안상희 PD 등 제작진이 ‘정말 웃기지만, 토론 구도로 거기에는 무리이니 기자 캐릭터로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고 조언해주셨어요. 그렇게 찐! 주 인턴기자가 완성됐죠.”



“좋은 포즈? 미소? 사랑합니다.” 쿠팡플레이 'SNL코리아 리부트 시즌1'의 '주 인턴기자'로 명성을 얻은 연기자 주현영. 8일 오후 쏟아지는 세상의 애정 가득한 시선에 환한 웃음으로 화답하고 있다.

- 실제 말투도 많이 녹아든 것 같은데?

“네. 요즘 ‘주 인턴기자’ 말투 그대로라는 말을 엄청나게 들어요. 실제로 대학시절 교수님 앞에서 발표할 때 말투와 제스처를 많이 녹였어요. 그리고 또래들의 모습도 많이 봐야 해서 대학생 토론 배틀 콘텐츠를 엄청나게 찾아봤어요. 변수를 만났을 때 이겨내거나 때로는 무너지는 모습 같은 다양한 표정을 참고했어요.”

- 스타들뿐 아니라 정치인들도 만났다.

“3개월 전 첫 게스트인 이병헌 선배와 함께한 대본 리딩이 생각나요. 신동엽 선배부터 정상훈 선배까지 모든 크루와 함께 아이디어 회의를 하는데, 여기서 내가 아이디어를 내고 있더니 믿기지 않더라고요. 거기에서 윤석열, 이재명 등 대선 후보들도 만났어요. 최대한 긴장하지 않으려고 ‘동네 할아버지 만나러 간다’고 주문을 외웠죠. 매회 스타부터 정치인까지 만나면서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큰일 난다’고 생각해 늘 긴장 백배였어요.”

● “연기자로서 부담? 오기? 생겼습니다.”

요즘에는 그가 실제 인턴기자인 줄 알고 각종 토론대회나 행사 주최 측이 출연 요청을 해온다. 연기자로서 코믹한

이미지가 걱정되지 않느냐고 물으니 “부담? 오기? 아무튼 그런 게 생겼다”면서 웃었다.

- 연기자로서 부담스러울 텐데.

“걱정하는 게 도움이 안 될 거 같더라고요. 연기자는 작품마다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주는 직업이잖아요. 그 연장선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다음 작품을 잘 해내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180도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거든요. 부담감이 원동력이 됐어요.”

- 데뷔한 지 얼마 안 됐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피아노를 하다가 ‘다이나믹한 걸 하고 싶다’고 생각해 별안간 서울공연예술고 연기과에 진학했어요. 대학 입시에서 삼수했어요. 그것도 오기로 해냈어요. 부모님 속 썩여가면서 연기했죠. 뭐. 대학 때는 학교생활에 전념하다 2019년 휴학하고 뒤편게 오디션에 보기 시작해 마침내 ‘SNL코리아’를 만나게 됐어요.”

- 그야말로 ‘꿈의 무대’에 입성했다.

“네! 학창시절 친구들이 다 그래요. ‘너, 드디어 꿈을 이뤘구나!’ 하고요. 제가 다 ‘SNL코리아’ 팬으로 만든 친구들이거든요. 베테랑 신동엽 선배부터 천사 같

? 주현영

▲1996년 1월14일생 ▲2016년 국민대 연극과 입학(현재 휴학) ▲2019년 단편영화 ‘내가 그리웠니’로 데뷔 ▲이후 ‘일진에게 찍혔을 때’ ‘마음이 시키는 대로’ ‘진흙탕 연애담?’ 등 웹드라마 출연 ▲2022년 넷플릭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예정

은 정상훈 선배, ‘원조’ 김민교·권혁수 선배 등이 저를 후배가 아닌 동료로 대 해주셔서 늘 감동의 연속이었어요.”

- 다음 ‘꿈’은 무엇인가?

“일단 연말에 촬영을 시작하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잘 촬영하는 것이요. 열심히 캐릭터를 만들고 있어요. 또 하나는 ‘SNL코리아’를 계속 꾸려가는 것. 저를 쏘아 붓고 싶어요. 조만간 내놓을 시즌2·3을 통해 입지를 제대로 굳히고 싶어요. 제게는 ‘꿈의 직장’이니 저를 갈아 넣어야죠. 또 다른 재미로 찾아올 테니 ‘주 인턴기자’ 잊지 말아 주세요!”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해산물 요리가 대박 성공아이템 판매가 8,000원, 70% 높은 마진율

코로나 19 지속적인 불황에 장사가 안되시면 해산물 요리집으로 간판만 바꿔 성공하세요

- ✓ 초보자들도 쉽게 운영이 가능한 반조리 식품이라 주방이 편하고 인건비가 저렴
- ✓ 남들이 할 수 없는 독특하고 뛰어난 메뉴구성

100 만원 으로 쉽게 **OPEN**

맛, 메뉴, 가격에 놀라고! 매출, 수익에 놀라고! 회사 지원에 놀라고! 외식 창업이나 업종전환 하실분! 순간의 선택이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꼬막비빔밥

꼬막비빔국수

배생이굴국밥

바지락 미역국

동태탕

황태해장국

추어탕

알탕

꼬막야채무침

황태구이정식

아구찜

동태내장전골

힘든 자영업자들을 위한
가맹비, 로열티 無

부자되는 브랜드
가맹점 / 취급점 모집

문의 T.1588-3892